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

- FinanceYahoo: 트럼프 “멕시코 관세 한 달 연기...캐나다와 중국은 그대로”

[미국 금융]

- JPMorgan Webinar '트럼프 1백일' 등록 안내
- WSJ: 트럼프 관세, 국채 금리 하락 유발
- Bloomberg: 관세 시행으로 달러 상승하면서 주식 타격

[미 행정부]

- WSJ: 트럼프의 무역 전쟁, 최종 목표 불분명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아보카도에서 자동차까지, 물가 우려 여파
- Bloomberg: 트럼프, EU에도 관세 위협 강화
- WSJ: 관세 덕분에 미 철강 가격 오르나?
- TheEconomist: 트럼프, 글로벌 세금 전쟁 벌이나?

[물류]

- WSJ: 공급망 혼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오일]

- WSJ: 유가 상승, 트럼프 관세에 따른 공급 위협 때문
- Bloomberg: OPEC+, 석유 증산 계획 유지

[인공지능]

- Harvard Business Review: 딥시크는 놀랄 일이 아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TechCrunch: OpenAI, 새로운 AI 에이전트 ‘Deep Research’ 공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속보]

FinanceYahoo: Live: Trump says tariffs on Mexico paused for a month; Canada, China duties set to take effect Tuesday
트럼프 “멕시코 관세 한 달 연기...캐나다와 중국은 그대로”

- 오늘 월요일 오전, 트럼프는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했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간 연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가 국경에 10,000명의 군대를 배치하여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 데 동의함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는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를 했지만, 캐나다 25% 관세는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10% 관세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금리 관련해 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금융]

- JP 모건 Webinar 등록 안내 -

제목: Trump’s policy priorities for his first 100 days, risks, and market sentiment

일시: Thursday, Feb.6 11:00am ET

발표자: **Frank Kelly**, Founder and Managing Partner of Fulcrum Macro Advisors;

Charles Myers, Founder and Chairman of Signum Global;

Daniel Silverberg, Managing Director of Corporate Practice at Capstone.

The session will be moderated by **Joyce Chang**, Chair of Global Research at J.P. Morgan.

등록 자격: KOCHAM 회원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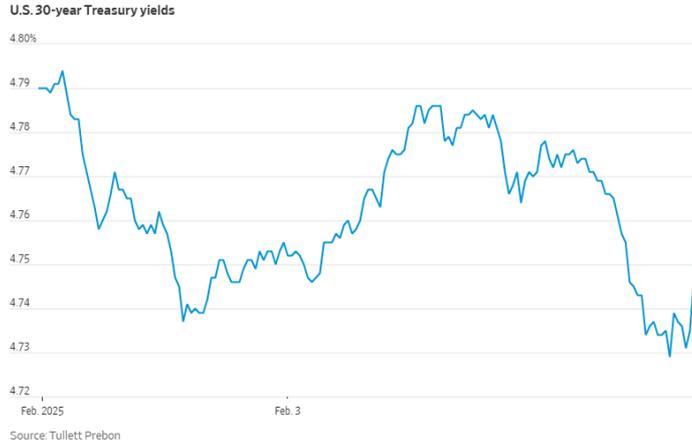
Please register for this event by clicking [here](#).

등록시: JP 모건의 Representative로 Joyce Chang 기재 바람

WSJ: Threat of Tariffs Drives Treasury Rally

트럼프 관세, 국채 금리 하락 유발

- 안전 자산으로의 도피와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국채가 랠리를 벌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오늘 월요일 10년 국채 금리는 그 전 세션의 4.566%에서 4.502%로 하락했다.
- 30년물 또한 금요일 4.812%에서 오늘 오전 4.735%로 하락 중이다.
- 골드만삭스 관계자들은 “우리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단기 물 금리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 성장 하락 리스크 때문에 큰 폭의 장기 금리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Dollar Jumps and Stock Futures Decline on Tariffs: Markets Wrap

관세 시행으로 달러 상승하면서 주식 타격

- 트럼프의 관세 시행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달러와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 S&P 500은 1.71%, 나스닥은 1.85% 하락 중이다. 관세 시행으로 리스크가 커진 종목들로 구성된 UBS Group AG 바스켓은 4.2% 하락했다.
-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 연관이 큰 자동차 종목도 크게 떨어졌다. 지정학적인 위험을 동반한 반도체 종목도 떨어졌다. 북미의 타이트한 오일 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관세로 에너지 종목도 하락했다.
- 달러는 팬데믹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멕시코 페소는 2%, 캐나다 루니는 1.1% 하락했다.
- 현재 장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2년물 국채 금리는 8포인트 베이스 늘어난 4.28%로 곡선이 평형해지고 있다. 이는 보통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 있다.

Bloomberg 기사

[미 행정부]

WSJ: Trump's Tariffs Usher In New Trade Wars. The Ultimate Goal Remains Unclear.

트럼프의 무역 전쟁, 최종 목표 불분명

- 트럼프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월가와 워싱턴 정가는 의문을 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강행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동맹국과 적성국의 경계선이 없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리스크가 큰 미국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관세 관련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 현재 트럼프는 단순히 관세를 통해 미국 보호주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이용한 압박 외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를 미국에 합병하겠다고 말하거나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포기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협력이 아니라 지배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The Products Trump’s Tariff Blitz Could Make More Costly, From Avocados to C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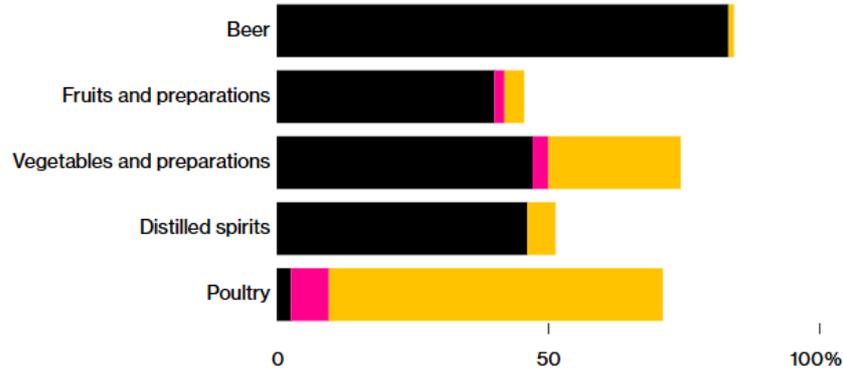
트럼프 관세, 아보카도에서 자동차까지, 물가 우려 여파

- 트럼프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 관세가 야채와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가격 인상을 야기해 미 가구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은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관세가 소비자에게 100% 전가되는 최악의 경우, 미국인들은 1인당 835불 또는 4인 가족당 3천2백42불의 부담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최근 분기별 무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ING는 평가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인의 소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US Imports Many Key Goods From Tariff-Hit Nations

Four in five beers the US imports come from Mexico

■ Mexico ■ China ■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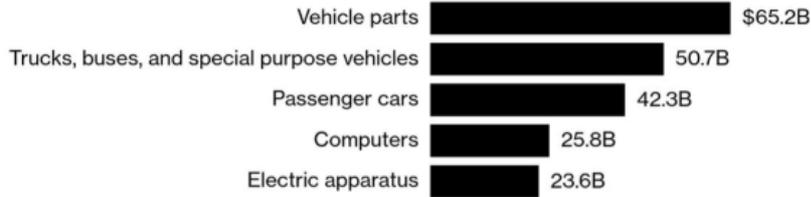


Sourc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e: "Preparations" include frozen, processed and dried produce, among other categories.

- 예를 들어 미국 수입 야채 50%, 과일 40%는 멕시코산이다. 자동차 부품의 50%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며, 의류 수입품의 30%는 중국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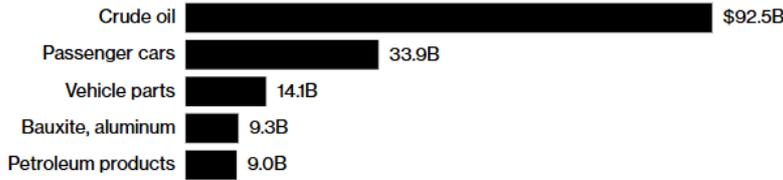
Top 5 US Imports by Value from Mexico



Source: US Census Bureau
Note: Data from 2023

Bloomberg

Top 5 US Goods Imports by Value from Canada



Source: US Census Bureau
Note: Data from 2023. US goods returned, and reimports are excluded.

Top 5 US Goods Imports by Value from China



Source: US Census Bureau
Note: Data from 2023; apparel/textile total is nonwool or cotton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Raises EU Tariff Threat, Plans Canada and Mexico Calls

트럼프, EU에도 관세 위협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 위협을 강화했다. 트럼프는 “EU는 미국의 자동차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어제 일요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발표했다. 오늘 월요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정부와 통화를 가질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화요일부터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는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 발언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낙관론이 거의 사라졌다. 이에 따른 여파로 미국 주식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하락했다. 캐나다 달러,

폐소화, 유로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달러는 상승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WSJ: Tariffs Give U.S. Steelmakers a Green Light to Lift Prices 관세 덕분에 미 철강 가격 오르나?

-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2024년 미 철강 수입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었다.
- 해당 관세가 부과되면 외국산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미 철강업체도 시장 가격에 맞춰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 울타리나 랍스터 뒷 등을 만드는 용접 제조업체 Riverdale Mills의 최고 경영자 James Knott은 미 철강업체가 2주 전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Knott은 “Riverdale의 생산 비용 66%가 철강에 들어가며, 그동안 약 80%의 철강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진다. 미국산 철강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철강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TheEconomist: Donald Trump's economic warfare has a new front 트럼프, 글로벌 세금 전쟁 벌이나?

-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곳을 선호한다. 국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른 국가보다 세금을 낮추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세금 경쟁’을 막기 위해 OECD 협상 결과 2021년, 136개국 이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 협상에 따라 최소 세금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에 정부는 추가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약 40개 국가는 이미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협상을 깨려고 한다.
- 트럼프는 만약 미국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국가의 기업에 두 배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세금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 OECD 협상 미국 수석대표 Itai Grinberg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이라면, 세율보다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 세금으로 인한 글로벌 갈등이 그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한 외교관은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관세로 외국을 위협했다. 이번엔 세금으로 외국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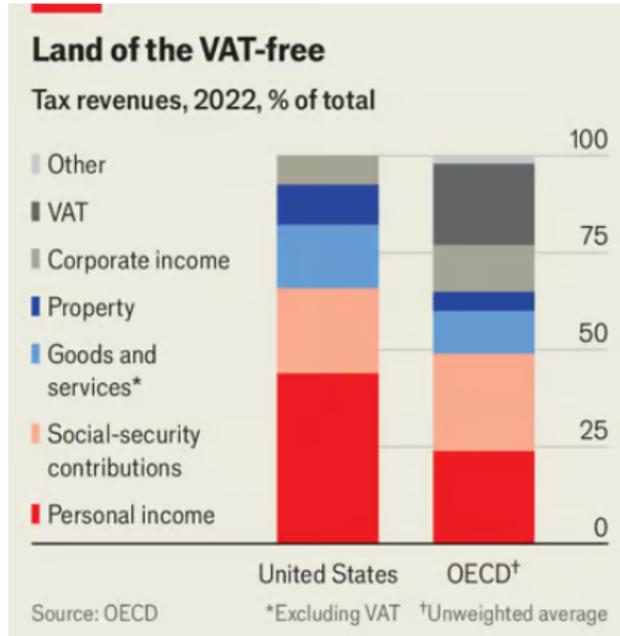


CHART: THE ECONO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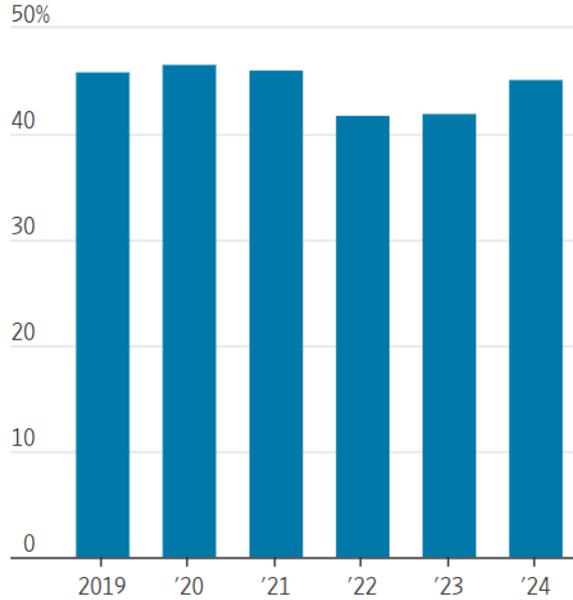
TheEconomist 기사

[물류]

WSJ: Supply Chain Turmoil Is Shifting U.S. Imports From Coast to Coast
공급망 혼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 몇 년 전에는 미 서부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화물이 미 동부 항만으로 이동했다. 작년에는 미 동부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차단하면서 다시 화물이 미 서부 항만으로 몰려갔다.
- 이처럼 화물이 미 동부 항만과 서부 항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동안 공급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에 부과될 트럼프 관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공급망 변화에 얼마나 대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수입업체와 물류업체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확장했다. 또한 남부와 남동부의 인구 급증 센터 가까운 곳과 인도와 같은 새로운 제조 허브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들어오는 항만에 창고 및 운송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hare of containerized U.S. imports that enter the country via West Coast ports



Source: Descartes

WSJ 기사

[오일]

WSJ: Oil Rises as Trump’s Tariffs Raise Supply Fears 유가 상승, 트럼프 관세에 따른 공급 위험 때문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석유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1.3% 상승한 배럴당 76.64달러를, 미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 상승한 74.97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10% 관세가, 중국에 1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하루에 약 400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캐나다 석유 생산업체나 캐나다산 원유를 주로 이용하는 미국 중서부 정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 같은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줘 글로벌 석유 수요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

WSJ 기사

Bloomberg: OPEC+ Sticks to Supply Plan Even as Trump Seeks Oil Price Cut OPEC+, 석유 증산 계획 유지

- OPEC+가 4월부터 석유 생산을 늘리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OPEC+는 유가 안정을 위해 증산 계획을 세 차례 연기했었다.
- OPEC+ 회원국 알제리의 에너지부는 “여러 지역에서 경제 성장 회복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3월까지 계절적 둔화가 있지만, 4월부터는 석유 수요가 크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OPEC+는 트럼프의 석유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 Vanda Insights의 설립자 Vandana Hari는 “OPEC+는 트럼프의 요청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OPEC+는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우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Harvard Business Review: Why DeepSeek Shouldn't Have Been a Surprise

딥시크는 놀랄 일이 아니다

- 중국의 AI 스타트업 DeepSeek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1월 20일 발표된 DeepSeek의 새로운 AI 모델은 ChatGPT 같은 미국 대기업의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지만,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다.
- 미국 AI 모델은 최신 엔비디아 칩을 포함한 수만 개의 GPU를 사용해 엄청난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한다. 반면, 중국은 최신 칩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저렴한 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 DeepSeek는 다중 헤드 잠재주의(Multi-Head Latent Attention)와 전문가 혼합(Mixture of Experts) 디자인을 통해 사용 메모리를 줄이고 컴퓨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미국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범용적이란 장점이 있다. 중국 AI 모델은 범용성은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작업에 특화되어 있어 효율적이란 장점이 있다.
- 중국 AI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Qwen plus 같은 중국 AI 모델은 백만 토큰(AI 모델과 대화하거나 질문하는 데 사용하는 재화)당 0.3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OpenAI의 ChatGPT 같은 미국 AI 모델은 백만 토큰당 60달러가 넘는다.
- 또한 중국 AI 모델은 오픈소스라는 강점이 있다. 즉, 저렴하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이 자연 선택되는 것처럼 AI 모델이 적응하고, 변화하고, 경쟁하고, 더 진화할 수 있다.
- DeepSeek의 등장은 AI 산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했다. 비싼 미국 AI 모델 하나만 사용하는 대신 저렴한 중국 AI 모델을 사용해 여러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 여러 AI 모델을 사용하면 복잡하고 모호한 작업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서비스 셋다운 같은 위기에도 강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고객 정보를 여러 AI 모델의 여러 공급사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Havard Business Review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TechCrunch: OpenAI unveils a new ChatGPT agent for 'deep research'
OpenAI, 새로운 AI 에이전트 'Deep Research' 공개

- OpenAI가 ChatGPT를 사용해 더 복잡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AI 에이전트 'Deep Research'를 공개했다.
- Deep Research는 금융, 과학, 정책,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 OpenAI는 오늘 월요일부터 ChatGPT Pro 사용자는 Deep Research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100개의 질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약 한 달 후에는 ChatGPT Plus 사용자도 Deep Research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능한 질문의 개수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Deep Research의 정확도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있다. ChatGPT는 종종 잘못된 답변을 제공하기도 한다.
- OpenAI는 최신 o3 모델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하면 가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Deep Research를 훈련했다고 밝혔다.
- 또한 'Humanity's Last Exam'을 사용해 Deep Research를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해당 테스트는 3,000개 이상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美재계·공화당 일부도 관세 반발...'대공황 악화' 스무트-홀리법 소환

트럼프 '황금시대' 연다지만...1929년 스무트-홀리법, 파국적 결말 경험 "관세는 세금인상과 마찬가지로...미국 소비자 가격 올릴 것"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내부 불만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무역과 유통 분야 등 관세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업계에선 공개적으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세기 전인 1920~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의 사례까지 거론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